

현실치료를 적용한 부모교육집단프로그램의 효과

: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 성 희(우석대 교수) · 김 현 수(전북가족복지교육연구원 연구원)
유 희 순(완주군건강가정지원센터 총괄팀장)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현실치료를 적용한 부모교육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부모들의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의 개인내적변인과 부모들의 양육태도와 부모효능감의 부모관련변인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y 지역의 센터의 이용자 중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현실치료를 적용한 부모집단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16명을 실험집단으로, 같은 센터를 이용하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16명의 어머니를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부모양육태도, 부모효능감 척도를 각각 1회씩 검사하는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분석,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부모양육태도, 부모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검정되었다. 둘째, 개인내적특성변인인 자아존중감과 내외통제성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변화의 차이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평균점수는 증가하였다. 셋째, 부모관련변인인 부모양육태도와 부모효능감에 대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통제집단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실험집단에서는 부모양육태도에서 합리-비합리 요인, 부모효능감에서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본 현실치료를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은 내적특성에서의 변화보다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부모효능감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